

남북한 정보기술용어의 차이점과 통일의 방안

KAIST 전자전산학과 KORTERM 연수연구원

김 광 수

들어가면서

우리는 정보의 관리, 전송, 처리, 축적, 형태 따위에 관한 이론이나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정보과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학 분야는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구미선진국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용어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먼저 정립되어 오는 실정이다.

남북한은 각각 정보기술에 관련된외국어용어에 대응하여 여러 면으로 우리말 용어 형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각기 자신의 기준에 의해 용어들을 생성하기에 그 용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이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확대되어 가는 남북정보교류와 경제발전 더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준비하여 가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로 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협력 및 교류가 한층 더 고조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호간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교류도 활발할 것으로 보여 이에 필요한 상호접촉 및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도 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향후 정보통신에서의 상호협력을 조성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또한 세계적인 기술발전추세에 맞추어 기존시설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장비와 망을 접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동표준화하고 적용하여 상호 접속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¹

필자는 이를 감안하고서 한국어정보학회와 조선교육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중국조선족신식학회 소속 3개국 학자들이 지난 94년부터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 6월 15일에 출판한 『정보기술 표준용어 사전』을 만들기 위한 자료에서의 북한용어와 KS(한국기술표준원)용어, 그리고 TTA용어(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자료를 비교하고 용어의 차이점과 그것이 형성되는 원인을 밝혀보고 용어 형성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따라 정보기술용어의 통일의 방도까지 생각해 보려 한다.

남북한 정보기술용어의 차이

1945년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사회와 언어환경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규범이 만들어졌고, 서로 다른 언어규범 속에서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어느 정도 이질화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으로 회복하고 통일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의 과제이다.²

우선 정보기술기본용어에 「기본용어」부분을 ISO2382 기준번호에 맞추어 영어, 조선어, KS용어, TTA용어 순으로 비교하여 본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사용하는 정보기술용어의 『기본용어』부분에서 용어의 사용을 보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적지 않게 있음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그 점을 간단히 개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같게 사용된 용어는 한자어 : 한자어(접근방법, 전자우편, 전자출판, 이식성, 직접회로) 등 49개, 외래어 : 외래어(해커, 비트, 펌웨어, 하드웨어) 등 9개이다. 다르게 사용된 용어가 한자어 : 외래어(자료관리↔데이터처리, 컴퓨터도형학↔컴퓨터그래픽스, 차림↔표메뉴, 소프트웨어묶음↔소프트웨어패키지) 등 45개, 철자가 다른 것(컴퓨터↔컴퓨터, 리산적↔이신적, 2진수↔2진숫자, 옥테트↔옥텟, 프로그램↔프로그람) 등 31개, 한자어 : 한자어가 다른 것(호상↔상호, 말단↔단말)은 18개이고 그 외 극소수로 시상차이, 고유어와 고유어, 단어결합 차이 등으로 다른 용어가 5개였다.

상기한 내용에서 우리는 남북한 정보기술용어의 사용에서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데 우선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는 정보기술용어에는 한자어가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한국보다 조선이 일반적으로 우리말 고유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한국은 조선에 비해 외국어를 차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음운 상에서 용어차이가 있는데 한국 용어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만 조

1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교류 및 협력방안"(문상균 2001년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p217)

2 "남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통일과 ISO계류안 문제"(최기호 2001년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n97)

Table 1.

ISO 번호	영 어	조 선 어	KS 용어	TA 용어	같은 점/다른 점 ³
01.01.01	Informa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정보처리에서)	정보	정보	=한자어
01.01.02	Data	자료	데이터	데이터	한자어≠외래어
01.01.03	Text	본문		본문	=한자어
01.01.04	To access	접근하다 찾아가다		접근 방법	동사≠명사
01.01.05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처리	정보 처리	정보 처리	=한자어
01.01.06	Data processing : DP	자료처리	DP	자료 처리 시스템	한자어≠한자어+외래어
01.01.06	Automatic data processing	자동자료처리		자동 데이터 처리	한자어≠외래어
01.01.06	Automatic data processing : ADP	자동자료처리		자동 데이터 처리	한자어≠외래어
01.01.07	Hardware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	=외래어
01.01.08	Software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음차
01.01.09	Firmware	펌웨어	펌웨어	펌웨어	=외래어
01.01.26	Configuration	구성	구성	구성	=한자어
01.01.27	Block diagram	구성도 블록도	블록도	계통도	≠한자어, 외래어(음차)
01.01.28	Synchronous	동기식	동기(식)		=한자어
01.01.29	Asynchronous	비동기식		비동기	=한자어
01.01.30	Input(data)	입력(자료)		입력 자료	=한자어
01.01.31	Input(process)	입력(처리)		입력 처리	=한자어
01.01.32	Input(adjective)	입력(형용사)		입력	=한자어
01.01.33	Output(data)	출력(자료)		풀력	한자어≠고유어
01.01.34	Output (process)	출력(처리)		출력 처리	=한자어
01.01.35	Output(adjective)	출력(형용사)		출력	=한자어
01.01.36	To download	내리신다		내려받기하다	≠고유어
01.01.37	To upload	올리신다		올려주기	≠고유어
01.01.38	Interface	대면(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한자어≠외래어
01.01.39	Data communication	자료통신	데이터 통신	데이터 통신	한자어≠외래어
01.01.40	Functional unit	기능단위	기능 단위	기능 단위	=한자어
01.01.41	Online (adjective)	직결(형용사)		온라인	한자어≠외래어
01.01.41	On-line (adjective)	직결(형용사)		온라인	한자어≠외래어
01.01.42	Offline (adjective)	비직결(형용사)		오프라인	한자어≠외래어
01.01.43	Time sharing	시분할			
01.01.43	Time slicing (deprecated in this sense)	시간세분(이 뜻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타임 슬라이싱, 시분할		한자어≠외래어, 한자어
01.01.44	Network	망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한자어≠외래어
01.01.45	Computer network	컴퓨터망	컴퓨터망	컴퓨터망	≠외래어(음차)
01.01.46	Local area network : LAN	국부망		국내 정보 통신망	단어≠단어결합
01.01.48	Turnkey system	완성인계체계		완성 인도 방식	한자어≠한자어
01.01.49	Virtual	가상(적)	가상	가상	=한자어
01.01.50	Virtual machine : VM	가상기계		가상 컴퓨터	한자어-외래어
01.01.51	Data medium	자료매체	데이터 매체	데이터 매체	한자어-외래어
01.01.52	Disk	디스크 원판	디스크	디스크	=외래어
01.01.53	To log in	(등록) 가입하다 로그인		접속 개시하다	≠한자어
01.01.53	To log on	(등록) 가입하다 로그인		접속 개시하다	≠한자어≠외래어
01.01.54	To log off	(등록) 탈퇴하다 로그오프		접속 종료하다	≠한자어≠외래어
01.01.54	To log out	(등록) 탈퇴하다 로그아웃		접속 종료하다	≠한자어≠외래어

3 도표에서 =는 같은 점, ≠는 다른 점을 표시한다.

Table 1. continued...

ISO 번호	영 어	조 선 어	KS 용어	TTA 용어	같은 점/다른 점 ³
01.02.01	Signal	신호	신호	신호	=한자어
01.02.02	Discrete	리산(적)	이산(적)	이산	≠두음법칙
01.02.03	Numeric	수값(의)	수치(적)	수치적	고유어≠한자어
01.02.03	Numerical	수값(의)	수치(적)	수치적	고유어≠한자어
01.04.07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외래어(음차)
01.04.08	Operating system:OS	운영체제 조작체계	오퍼레이팅시스템, 운영체제	운영 체제	=한자어≠외래어
01.05.01	Computer program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외래어(음차)
01.05.01	Program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외래어(음차)
01.05.02	To program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프로그램 한다	루틴	≠외래어(음차)
01.05.02	To code (deprecated in this sence)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이 뜻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한다		
01.05.03	Programming	프로그램작성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작성	≠한자어(음차)
01.05.04	Routine	루틴 상용수속	루틴	루틴	=외래어
01.05.04	Program (deprecated in this sence)	프로그램(이 뜻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루틴	프로그램	≠외래어(음차)
01.05.05	Algorithm	산법 알고리즘	산법, 알고리즘	알고리즘	=한자어, ≠외래어(음차)
01.05.06	Flow diagram	흐름선도	흐름도	흐름도	=고유어
01.05.06	Flowchart	흐름도	흐름도	순서도	=고유어
01.05.07	To debug	오류수정하다		결합 수정하다	≠한자어
01.05.08	Natural language	자연언어	자연 언어	자연 언어	=한자어
01.05.09	Artificial language	인공언어	인공 언어	인공 언어	=한자어
01.05.10	Programming language	프로그래밍(작성)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외래어(음차)
01.06.01	Simulation	모의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고유어
01.06.02	Emulation	모방	에뮬레이션	모방	=한자어
01.06.03	Information retrieval:IR	정보검색	정보검색	정보검색	=한자어
01.06.04	Hard copy	하드코피 경복사	하드 카피, 인쇄출력	하드 카피	≠외래어(음차)
01.06.05	Soft copy	소프트코피 연복사	소프트 카피	소프트 카피	≠외래어(음차)
01.06.06	Menu	차림표 메뉴	메뉴	차림표	=고유어, 외래어
01.06.07	Prompt	입력독촉 프롬프트	프롬프트	프롬프트	=외래어
01.06.08	Computer graphics	컴퓨터도형학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스	한자어≠외래어
01.06.09	Office automation : OA	사무자동화 OA		사무 자동화	=한자어
01.06.10	Text processing	본문처리			
01.06.10	Word processing	문서처리		문서 처리	=한자어
01.06.11	Compatibility	호환성	호환성	호환성	=한자어
01.06.12	Artificial intelligence : AI	인공지능		인공 지능	=한자어
01.06.13	Robotics	로봇공학	로봇 공학	로봇 공학	≠외래어(음차)
01.06.14	Computer-assisted : CA	컴퓨터지원의		컴퓨터 이용	≠한자어
01.06.14	Computer-aided : CA	컴퓨터지원의		컴퓨터 지원에 의한	≠단어결합

선 용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외국어 차용에 있어서 조선과 한국은 외국어 용어에 대한 음차표기의 차이로 인하여 용어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북한의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용어사전”을 분석해 본 결과 3 도표에서 =는 같은 점, ≠는 다른 점을 표시한다.

과 남한과 북한의 정보기술용어는 37% 정도가 일치하고 나머지 63%는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ICCKI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 양측이 제시한 용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SO2382의 용어 1,852개 중 같은 것은 11.94개(64.5%), 다른 것은 658개(35.5%)로 나타나서

몇 차례의 교류과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용어 상의 차이가 엄연함을 알 수 있다.⁴

북한의 정보기술용어 중에서도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정보 기술용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족점은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⁵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남한은 주로 영어에서 수입한 용어를 번역하거나 외래어로 사용하는데 비해 북한은 초기에는 주로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근대에는 일본에서 수입된 용어들도 사용되기도 했다고 보아진다. 역시 남북한이 각각 제정한 철자법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남북한 정보기술용어의 제정원칙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모해가는 현대에 정보기술용어의 사용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현재 어느 과학분야의 용어에 비해서도 남북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통일이 되어야 할 용어이다.

남북한 정보기술용어의 통일을 이루려면 정보기술용어의 제정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전문용어는 개념에 담아야 할 과학적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모호성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로 선택의 여지를 가진 용어는 허용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처리과정 혹은 장치를 자동 조작으로 바꾸는 것 혹은 그의 결과를 “자동화(automatic),”⁶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재정적 자원과 같은 조직적인 자원들과의 협력 하에 정보를 제공하고 배포하는 정보처리체계를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 얻은 지식의 정당성이 외부지식 원천으로부터의 반 결함을 통하여 시험되는 학습전략을 “감독학습(supervised learning)”, 한 개 이상의 처리기와 그들의 내부 기억 장치들로 이루어진 기능 단위를 “처리장치(processing unit)”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정보기술처리 과정의 본질적인 특성을 아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데 정보기술용어 정의에서 모든 용어는 반드시 이러한 정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단어 안에 들어 있는 문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지정된 단 어 끝 방향으로 동일한 문자 자리 수 만큼 옮기는 것을 “자

리밀기, 자리이송, 자리이동, 시프트(shift)” 등 여러 용어들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자리밀기”를 쓰는 것이 용어의 정확성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하나의 외국어 용어에 우리말 용어가 여러 개로 대응되는 예들이 있는데 “advice taking”에 “조언받기↔충고”, “flowchart”에 “흐름도↔순서도”, “emulation”에 “모방↔에뮬리에션”, “image processing”에 “화상처리↔영상처리” 등이다. 이 때에는 정보기술 용어의 적절성 원칙에 따라 정보기술 개념을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조언받기, 흐름도, 모방, 영상처리” 등 용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하나의 과학 영역에서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만이 표시하여야 한다. 즉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만 표현하여야 전문용어의 증의성을 피할 수 있다. 전문용어의 사업에서 될 수 있는 한 뜻이 같은 용어, 소리가 같은 용어, 뜻이 여러 개인 용어가 생성되어 단의성(單意性) 원칙을 위반하면 용어 사용에서의 엄중한 오해를 가져온다. 때문에 새 전문 용어를 만들거나 지금 있는 전문용어를 계통화 할 때 우선 반드시 하나의 개념에 새로운 술어를 달아주기 전 이 개념을 표시하는 다른 용어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 보아야 한다. “file”에 “서류-파일” 두 용어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서류”는 “서류1(西流), 서류2(書類), 서류3(庶流), 서류4(庶類)” 등 여러 가지의 한자어가 대응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글자로 기록한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기밀 서류/서류를 정리하다/서류를 작성하다/서류를 꾸미다” 등이다. 하기에 이럴 때는 의미의 단의성 원칙에 의해 외래어지만 “파일”을 쓰는 것이 더욱 적당하다. 또 예를 든다면 “integer”는 “용근수-정수” 두 용어 대응될 수가 있는데 “정수2(井宿)-천문, 정수3(正手)-운동, 오락, 정수4(正水)-한의학, 정수5(正數)-수학, 정수6(定手)-불교, 정수7(定數)-물리, 정수16(精水)-의학” 등 7개의 전문분야와 23개의 의미로 쓰인다. 이때는 반드시 용어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용근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문용어의 생성에 있어서 단일성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용어는 반드시 명확한 층차 구조 가운데 있어 공동으로 하나의 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용어의 명명에서 될 수록 계통성을 보워해야 한다. 학술적 내용의 체계성을 표현하려면 이처럼 몇 개의 말마디 단위를 중심으로 용어부류를 묶는 것이 필요하다.

《나무(tree)》 : [정보기술용어]

《나무》 ⇒ 《부분나무》 → 《순서나무》 → 《2진나무》 → 《균형나무》 → 《높이균형나무》

독일어 전문용어의 Sublimationstrocknung(승화건조),

4 서로 다른 정보기술용어의 동질성 회복(김병선 국어생활 2001년 봄).

5 정보기술용어의 우리말 다듬기와 표준화에 관한 연구(이수락 2001년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p48).

6 줄고에서의 용어해석은 모두 『ISO2382기준(한영조일)정보기술표준 용어 사전』(한국어정보학회, 중국조선어신식학회, 조선교육성프로그 램교육센터공저 2002년)의 해석을 따랐다.

Strahlentrocknung(복사건조), Konvektionstrocknung(대류공기건조) 등 전문용어는 모두 Trocknung(건조)라는 용어로부터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문용어의 체계성은 또한 용어가 평면적으로만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입체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도 나타난다.

현실세계의 연관자체가 복잡한 입체적인 체계 속에 존재하는 만큼 그의 학술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전문용어의 체계성이 입체성을 띠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식》: [정보기술용어]

《표식》⇒ 《내부표식》



⇒ 《기록권표식》→ 《기록권시작표식》

→ 《기록권끝표식》



⇒ 《머리부표식》→ 《꼬리표식》



⇒ 《파일시작표식》→ 《파일끝표식》

리수락(2001)에서도 “picture-graph-image-video, sound-voice-speech와 같은 용어들도 뜻이 뚜렷이 달라지지 않게 그저 화상, 음성이라고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념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정확히 반영 시키려면 이 용어들에 그림>도형>화상>영상, 소리>목소리>말소리와 같이 계층구조를 이루는 말들을 대응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러 갈래로 연관된 학술적 내용을 말마디의 연관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특성은 전문용어의 고유한 특성으로 되며 따라서 이것은 용어의 높은 기능을 담보하는 우수성으로 된다.

전문용어의 구조는 반드시 해당 언어의 단어형성규칙과 단어결합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뜻인즉 언어적 정확성(linguistic correctness)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디젤발동기(柴油機)”라는 전문용어는 독일에서 Dieselmotor로 표시하여 Diesel와 Motor의 합성어로, 영어에서는 diesel engine로서 diesel는 앞에 있고 engine가 뒤에 있으며 프랑스어는 moteur Diesel로 표달하는데 Diesel가 뒤에 있고 moteur가 앞에 있다. 이러한 전문용어의 구조는 모든 전문용어는 해당언어의 단어구성과 단어결합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 정보기술용어도 한국어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음운론적 법칙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하나의 예로 형태론적 측면의 단어만들기 수법을 살펴보면 우리말 어휘를 만드는 데 어근끼리 합치거나 뒤붙이, 앞붙이를 덧붙여 만드는 수법이 가장 생산적인 수법이다. 전문용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법이 가장 생산적인 수법인데 이런 수법을 잘 살리고

지키면서 정보기술용어도 만들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 접두사법 : 불- : 불일치연산(non-identity operation), 맨- : 맨윗자리수자(MSD), 역- : 역다중화(demultiplexing), 역방향찾기(reverse search) 비- : 비등가연산(non-equivalence operation), 실- : 실주소(real address), 실기억기(real storage), 되- : 되감다(to rewind).

2) 합성법 : 논리+합수, 생성+합수, 논리+연산, 일치+연산, 등가+연산, 상대+오차, 절대+오차, 평형+오차, 파일+갱신, 허가+신호, 금지+신호.

3) 접미사법 : -기 : 논리곱하기, 산수자리밀기, 논리자리밀기, 자료넣기, 자리기 -화 : 토막화, 국부화, 암호화, 초기화 -법 : 자리식표기법, 하쉬법 -점 : 출구점, 검사점 -식 : 자리식표기법 -□ : 순차몽침, 반올림, 반복걸음.

4) 접두사, 접미사법 : 덧-(+)(대-)+ -기 : 덧대기, 비-+()-식 : 비동기식전송

전문용어는 간단하고 명료하여 읽고 기억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영어에서 quartzmineral(석영광물)이라는 전문용어는 quartz(석영)이 곧 mineral(광물)이므로 전문용어의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번잡한 감을 준다.⁷ 전문용어는 너무 길어서는 안 되며 긴 용어는 보편적으로 보급이 잘 안 된다. 여기에서 간명성은 늘 정확성과 모순을 가져오게 되는데 용어가 반영하는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념에 대한 표현이 더 완미하여 개념은 명확하나, 용어가 길어지고 사용의 불편을 가져온다. 때문에 전문용어의 사업에서 간명성과 준확성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파일의 끝을 가리키면서 파일 제어에 쓰이는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내부 표식(trailer label)을 “파일끝 표식, 꼬리표식, 뒷머리라벨” 등으로 쓸 수 있으나 간명성과 준확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꼬리표식”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 밖에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궤적현시장치↔캘리그래픽현시장치(calligraphic display device), 도형입력판↔그래픽스 태블(graphics table), 윈도 표시역 변↔창문/보임구역변(windowviewport transformation), 적재프로그램↔적재(load)” 등 용어에서도 간단하고 알기 쉬운 “궤적현시장치, 도형입력판, 창문구역변, 적재” 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용어의 학술 함의는 전문용어의 구조가 표현하는 근거를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될 수 있도록 글을 보면 뜻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이른바 전문용

7 “현대전문용어학입문(現代術語學印論)”(馮志偉 語文出版社 1997年 p2)

어의 근거성(理据性)이다. 정보기술용어에서 “주소공간(address space)”이라면 주소들의 모임(어떤 프로그램이나 기능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이 떠오르고, “건너뛰기(skip<in text processing>)”이라면 뛰어 넘을 수 있는 기능(사용자가 페이지나 단락과 같은 단위로 본문을)이 생각되며, “응용프로그램생성기(application generator)” 일정한 응용분야에 속한 한 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원천 코드 생성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인식된다. 이와 같이 용어는 사전적 정의를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타내는 개념이(적어도 부분적으로) 유추가 될 수 있는 투명성이 높은 용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문용어는 용어로 된 후에는 아주 특수한 정황을 제외하고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의 atom(원자)라는 용어는 원래의 의미로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고 분리할 수 없는 단위를 말하는데 후에 물리학에서 “원자”는 가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개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전문용어의 온정성이다. 정보기술용어도 반드시 온정성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언어로부터 도입된 차용어가 용어 형성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토착표현이 직접적인 외국어 차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용어는 본 민족어의 말로 만들 때 모호한 의미가 적어지는데 이때 감정색채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정보기술용어에서 한 영어용어에 대응되는 여러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우리말 용어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자기식 자료매체 위에서 자료의 지우기만을 할 수 있는 “자두(erase head)”를 “소거헤드 혹은 지우기머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우리말 용어 “지우개머리”를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preambl(프리앰블-머리동기열), beginning-of-tape marke(테이프시작표시-띠시작표시), hard sectorin(하드섹터링-물리적분구화), feed trac(피드트랙-공급구멍자리길), computer graphic(컴퓨터그래픽스-컴퓨터도형화), texture mappin(텍스트매칭-결문양넘기기)”에서 “머리동기열, 띠시작표시, 물리적분구화, 공급구멍자리길, 컴퓨터도형화, 결문양넘기기” 등 용어를 선택하는 근거는 바로 될수록이면 우리말 용어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전문용어가 외국어에서 먼저 정립되는 실정에서 외국어에 대응되는 우리말 용어를 구축하는 것 즉 모국어에 대한 선호도(preferance for native language)원칙을 지키는 것은 외래문화화를 우리 문화로 이전 하는데 아주 필요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키우는데도 매우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새로운 정보기술 표준용어의 확립

용어생성의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하여 남북한이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용어에 계속적으로 적용해 간다면 용어에 있어서 남북한의 이질화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용어 생성의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TC37의 ISO 704 “전문용어 작업의 원리 및 방법(Terminology work-Principles and methods)”과 위에서 제기한 남북한 용어 제정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규격에서는 용어의 개념의 관계, 개념들간의 관계(위계적, 연상적 관계), 개념의 정의 방법, 용어의 형성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남북한 정보기술 표준용어는 아래와 같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 정보기술용어가 남북이 모두 같게 쓰는 것은 그대로 통일하여 쓴다.

둘째 :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쓰는 컴퓨터 용어는 그대로 쓴다.

셋째 : 남북에서 쓰는 외래어나 한자어는 될 수록이면 고유어로 바꾸어 쓴다.

넷째 :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단어를 읽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쓴다.

다섯째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컴퓨터/컴퓨터, 호상/상호, 리산/이산, 옥테트/옥텟, 수자/숫자, 프로그램/프로그램, 말단/단말, 알고리즘/알고리즘, 코피/카피, 포보트/로봇”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외래어표기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용어는 잠시 두 가지 용어를 모두 허용하는 원칙을 세우고 철자법의 통일을 기대한다.

이러한 원칙과 함께 과학기술용어의 통일 방법에는 자연적인 것과 임의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중 자연적 통일이 더 바람직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긴 세월이 흘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임의의 통일은 그 통일 속도가 신속하고 효과가 탁월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말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용어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고 불합리한 용어가 채택될 위험성도 있다.

우리는 임의의 통일방법을 채택하되 통일과정에서 자연적 통일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이다. 즉 처음부터 한 가지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현재 쓰고 있는 몇 개를 한 시기는 같이 쓰되 시간이 가면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용어로서 서서히 통일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Table 2.

ISO 번호	영 어	조 선 어	SK 용어	TTA 용어	같고 다른점	통 일 안
01.05.05	Algorithm	산법 알고리즘	산법, 알고리즘	알고리즘	=한자어, 외래어	풀이법
01.05.06	Flow diagram	흐름선도	흐름도	흐름도	=고유어	흐름선도
01.05.06	Flowchart	흐름도	흐름도	순서도	=고유어	흐름도
01.05.07	To debug	오류수정하다		결합 수정하다	한자어-한자어	수정하다
01.05.08	Natural language	자연언어	자연 언어	자연 언어	=띄어쓰기	자연언어
01.05.09	Artificial language	인공 언어	인공 언어	인공 언어	=띄어쓰기	인공언어
01.05.10	Programming language	프로그램(작성)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한자어-외래어	프로그래머언어
01.06.01	Simulation	모의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고유어-외래어	모의실험
01.06.02	Emulation	모방	에뮬레이션	모방	=한자어	모방
01.06.03	Information retrieval:IR	정보검색	정보검색	정보검색	=한자어	정보검색
01.06.04	Hard copy	하드코피 경복사	하드 카피, 인쇄출력	하드 카피	-외래어(모음)	하드카피
01.06.05	Soft copy	소프트코피 연복사	소프트 카피	소프트 카피	-외래어(자음, 모음)	소프트카피

Table 3.

ISO번호	영 어	조 선 어	KS 용어	TTA 용어	통일어(의견)
27.01.01	Office automation : OA	사무자동화	사무 자동화, OA	사무 자동화	사무 자동화
27.01.02	Office automation system	사무자동화체계	사무 자동화시스템		사무 자동화시스템(체계)
27.01.03	Subscriber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27.01.04	Text transmission	본문전송	글월(음성, 영상, 화상) 전송		자료전송
27.01.05	Electronic archive	전자식보존문서	전자 보관		전자보관
27.01.06	Filing	서류화 파일화	파일링		파일화
27.01.07	Document delivery	문서배포	문서 송달		문서 배달
27.01.08	Distribution list	배포목록	분산 목록	배포 목록	배포 목록
27.01.09	Originator	발신자	발신자		발신자
27.01.10	Recipient	수신자	수신자	수신자	수신자
27.01.11	Envelope	봉투	엔벨로프	봉투	봉투
27.01.12	Document interchange format	문서교환서식	문서 교환 형식		문서교환형식
27.01.13	Message (in electronic messaging)	통보(문) (전자식통보에서)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통보)
27.01.14	Voice mail	음성우편	전화 사서함	음성 우편	음성우편
27.01.15	Blind-copy recipient	비공개사본수신자	비밀 복사 수신자		비밀복사 수신자
27.01.16	Copy recipient	사본수신자	복사수신자		복사 수신자
27.01.16	Secondary recipient	2차수신자	2차적인 수신자		2차수신자
27.01.17	Desk application	탁상응용프로그램	탁상 응용		탁상응용
27.01.18	Integrated software	통합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소프트웨어
27.02.01	E-mail	E메일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메일)
27.02.01□	Electronic mail	전자우편	전자 우편		전자우편(메일)
27.02.02	Electronic messaging	전자식통보	전자 메시징		전자 메시지(전자 통보)
27.02.03	Electronic mailbox	전자우편함	전자 우편함	전자 우편 사서함	전자 우편함
27.02.03	Mailbox	우편함	우편함	편지함	우편함
27.02.04	Directory (in electronic mail)	등록부(전자우편에서)	디렉토리	디렉터리	등록목록
27.02.05	In-basket	수신함	수신함		수신함
27.02.05	Inbox	수신함	수신함		수신함
27.02.06	Out-basket	송신함	송신함		송신함
27.02.07	Broadcast mail	동시배포우편	방송 전자우편	동보 전자 우편	배포우편
27.02.08	Message retrieval	통보검색	메시지 검색		통보검색(메시지 검색)
27.02.09	Folder	서류철	폴더	폴더	폴더(서류철)
27.03.01	Telex	텔렉스	텔렉스	텔렉스	텔렉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정보기술용어 남북통일용어 몇 개만 잠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Table 2).

아래 『ISO2382기준(한영조일)정보기술표준용어 사전』(한국어정보학회, 중국조선어신식학회, 조선교육성프로그램교육센터공저 2002년)에서의 “사무자동화” 부분의 용어에 대한 통일안도 생각해 본다(Table 3).

결 론

이상과 같이 필자는 남북한 정보기술용어의 사용과 통일의 방도를 생각해 보았다. 상기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남북한은 오랫동안 교류가 단절되어 있었고 서로 다른 정보기술용어의 형성방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정보기술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남북의 정보 교류 및 남북한이 함께 국력을 높여가는데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정보기술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도 이질화 된 것은 아니다. 용어 형성의 과학적인 원칙을 세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자기만 고집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든지 통일을 이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국가기반의 기반으로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의 정리는 장기적인 자연언어처리 기술 발전은 물론 국민의 전문의식수준의 향상, 국가관리의 효율화와 더불어 자생적 학문의 발

전과 잉태를 가져올 것이다.⁸

그 다음으로 남북한 용어의 통일 범위는 정보기술용어 뿐 아니라 여러 기타 영역에도 미치는데 이것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 학자들 만의 임무가 아니라 남북한 그리고 해외에 사는 모든 겨레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기술사업단 BK21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REFERENCES

- ISO2382 기준(한영조일) 정보기술표준용어 사전, 한국어정보학회, 중국조선어신식학회, 조선교육성프로그램교육센터공저(2002)
- 표준전자공학용어사전, 대한전자공학회(1997)
- 컴퓨터 정보 용어 대사전, 컴퓨터정보과학용어연구회(1997)
- 전자통신용어해설집, 한국전자진흥협회(1997)
-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1993, 2001)
- 최신판 IT 용어사전, aiwa Soken 저(2001)
- 전문용어연구(1.2.3), 최기선, 송영빈, 신호식 MORTERM(2000, 2001)
-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정비, 최기선 등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2001)
- 現代術語學引論, 馮志偉 語文出版社(1997)
- 術語淺說, 馮志偉 語文出版社(2000)
-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사회과학출판사(1986)
- 북경학술회의 논문집(2002년 8월 북경)
- 정보지식혁명과 전문용어, 이기용, 시정곤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원(2001)
- 정보기술용어의 우리말 다듬기와 표준화에 관한 연구, 이수락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2001)
- 남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과 ISO계류안 문제, 최기호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2001)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정보통신협회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2001)
-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교류 및 협력방안, 문상균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2001)
- 서로 다른 정보기술용어의 동질성 회복, 김병선 국어생활(2001)

8 「전문용어와 센터의 역할」(p2 최기선 『전문용어』 1 흥룡과학출판사 2000년)